◆ ▣ ◆ ▣ ◆ ▣ ◆ ▣ 이웃의 등대 · 민족의 구원선 · 세상의 나침반 ▣ ◆ ▣ ◆ ▣ ◆ ▣ ◆

“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나’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생명)가 아닌 ‘프쉬케’(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6)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7)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 · 人 양성의 기독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몰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멸시로 특징 되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2015년 12월 19일 발췌-

◆ ▣ ◆ ▣ ◆ ▣ ◆ ▣ ◆ 하나님 중심 · 성경 중심 · 교회 중심 ◆ ▣ ◆ ▣ ◆ ▣ ◆ ▣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 장례에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와 성도의 위로로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명절 연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은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3012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33권 제4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3년 1월 22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명절에 예수께서 ”

■ **요한복음 5:1-9**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겨 오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분의 사랑과 돌봄으로 신앙을 이어왔고 환난의 시기를 함께 견디어 왔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없지만 목사님께서 겪으신 삶의 풍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교회 회복을 보시고 떠나시게 되어 한편 감사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오늘 주일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던 주님의 모습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원로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예수님의 관심

예루살렘은 명절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의하면 평소 4-6만 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명절 때는 그 보다 10배가량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지인들을 만나고 식민지배의 압박감을 마음껏 풀면서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나 친척들의 집이나 축제의 자리를 찾지 않으시고 환자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못 가를 찾으셨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관심사에서 드러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즐거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 관심사여야 합니다.

2. 38년 된 환자

이 베데스다의 불행한 인간들 곁으로 찾아가신 주님은 곧 바로 그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의 병세를 알아보신 주님은 바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먼저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38년을 투병한 사람인 것,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 등입니다. 즉 그가 그 모든 환자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 모습이 가장 비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포도원에 아침에 부름 받은 일꾼처럼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못난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의 괴수였고 절망의 늪에 빠진 존재였고 불가능성의 결집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발견되어 구원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곁에 오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3.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온갖 비바람과 먼지에 찌들고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분비물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거저 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형편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병이 나은 상황에서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썩고 악취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자였을 때는 그나마 그의 곁에서 그를 지탱하고 보호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것이 있어 자기 공간이 있었고 병든 몸을 조금이라도 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환자 때문에 그 자리는 악취 나고 썩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이 자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와 국가사회를 위해 일생을 바친 분들도 이 자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있어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잘 되고 나면 모두 버릴 생각만 합니다. ‘네가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준 그것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력한 책임의 자리를 우리가 메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Ⅰ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오윤걸 장로
Ⅱ	오전11시	장석남 목사	김혜언 장로
Ⅲ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오윤걸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엡 4:22-24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	14(1, 4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다 함 께
* 성시 교독	33(시 72)	다 함 께
* 송 영	4	다 함 께
기 도		맡 은 이
찬 송	484	다 함 께
성경 봉독	요 5: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 봉헌송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명절에 예수께서"	손달익 목사
* 찬 송	29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예배로 부름	엡 4:22-24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기 도		맡 은 이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교회 소식		인 도 자
성경 봉독	요 5:1-9	맡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명절에 예수께서"	손달익 목사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 봉헌기도		설 교 자
* 파 송		찬 양 팀
* 축 도		설 교 자
* 후 주		찬 양 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 5:8-9)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조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김익환 목사	이용길 집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요일 4:7-8	인 도 자
찬 송	15	다 함 께
기 도		맡 은 이
찬 송	299	다 함 께
성 경	눅 13:10-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예수님의 관점"	김익환 목사
* 찬 송	21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Ⅰ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석상화 권사
Ⅱ	오후 7시	장석남 목사	임미경 권사

성 경	왕상 15:25-3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혼돈의 시대"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 손달익, 전재홍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 찬 양 팀

설 교 ·····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2,035명	538명	2,573명	814명	2,147명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 회 소 식

◈ 모 임

1. **스데반회 월례회** / 28일(토) 오후 5시 101호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506호**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6.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8.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606호**
   신혼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10.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11.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3.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4.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첫 번째 세례식인 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2월 2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1월 28일(토)
    - 세례교육: 4주 교육(1/29, 2/5, 2/12, 2/19일) 낮 12시 20분 609호
    - 세례문답: 2월 19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2월 11일(토)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2월 19(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장 례

1. **故 박세화 님(4교구 김미선 권사의 모친, 정석균 집사의 장모) /**
   1월15일 별세, 1월17일(화) 발인
2. **故 이종윤 원로목사(홍순복 사모, 이미리 집사, 이미영 집사, 이미경 집사) /**
   1월18일(수) 별세, 1월21일(토) 천국환송예배